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The Islam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day)

최영길*

1. 서론
2. 이념과 사상으로서의 이슬람
3. 사회문화로서의 이슬람
4. 종교로서의 이슬람
5. 결론

1. 서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삼대 성지¹⁾ 중에서 꾸란(코란)이 계시된 메카와 메디나 두 성지를 두고 있는 나라이자 이슬람을 소개한²⁾ 예언자 무함마드(마호메트)의 고국이며 전 세계에 꾸란을 보급하기 위한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King Fahd Complex for the Printing of the Holy Quran), 이슬람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이슬람부처(Ministry of Islamic Affairs & Al-Awqaf), 전 세계 이슬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 세계 무슬림 총연맹(The World Muslim League), 전 세계 무슬림들의 메카와 메디나 두 성지 순례(Hajj) 업무를 총괄하는 하지부처(Ministry of Hajj)를 두고 있는 이슬람의 본산이요 종주국으로써 이슬람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서력 610년부터 632년까지 약 23년 동안 무함마드에 의해 소개된 꾸란은 이

* 명지대학교 교수

1) 세 번째 성지 예루살렘

2) 무슬림 학자들은 꾸란 3장 19절에 근거하여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알라께서 제정한 후 아담을 비롯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모세, 예수 등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믿어왔던 창조주 알라의 종교가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재조명 된 것에 불과한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길, 『이슬람문화』, (서울: 알람, 2004), p. 22.

슬람종교의 경전으로 자리를 잡은 뒤 이슬람 공동체의 체제와 정치이론을 뒷받침하는 사상서로 발전하면서 무슬림 각 개인의 생활지침서가 되고 사회문화를 주도하면서 오늘날의 22개 아랍 국가를 탄생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57개 이슬람국가³⁾ 나오는 힘과 무슬림들의 예배 언어를 꾸란의 아랍어로 통일시키고 아랍어를 인류가 사용해온 모든 언어들 중에서 최장수의 언어가 되게 한 생명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꾸란을 헌법으로까지 채택하고 있다. 꾸란의 의미는 물론이고 자구까지 창조주 알라(Allah)의 것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꾸란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개입은 물론 그에 대한 비평까지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에 의한 꾸란의 자구 수정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헌법인 꾸란에 대한 폐기는 물론이고 수정이나 보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 국회의 핵심적 기능인 헌법제정, 폐기, 보완, 수정이 불가능한 나라다. 따라서 국회의 필요성이 희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하게 되어 결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관련한 문화가 없는 나라이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본 현대의 이슬람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슬람세계가 너무나 방대하고 또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슬람 상(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이슬람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을 연구범위로 삼았다. 제1장에서는 이념과 사상으로서의 이슬람, 제2장에서는 사회문화로서의 이슬람, 제3장에서는 종교로서의 이슬람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념과 사상으로서의 이슬람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은 존재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슬람은 우주와 인간을 비롯하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들을 존재케 한 원인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원인자를 창조주(Al-Khaliq)라 하였고 그 창조주로 인하여 존재한 모든 것을 피조물(Al-Makhlūq)이라 정의하고 있다.⁴⁾ 이처럼 창조주를 인

3) 22개 아랍 국가는 꾸란의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이며, 57개 이슬람국가는 22개 아랍 국가와 무슬림 인구가 50% 이상인 비아랍 이슬람 국가 35개국을 합친 이슬람국가들을 가리킨다. 최영길,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서울: 세창출판사), 2009, pp. 363-377.

간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 즉 알라의⁵⁾ 실체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분이 제정한 이슬람법(Shariah)을 최상위법으로 두고 이에 근거한 입법·사법·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의 통치권자는 이슬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이 제시하고 있는 통치이념이요 정치사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꾸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여, 알라께 복종하고 그분의 사도, 그리고 너희 가운데 책임을 진 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알라와 사도에게 위탁하라. 너희가 알라와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니라.”⁶⁾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Hadith)과 전통(Sunnah)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알라를 두려워하고 나 무함마드 다음으로 올 지도자들에게, 비록 그가 노예출신이라 하더라도 경청하고 순종하십시오.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나의 전통(Sunnah)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요 또한 바르게 안내된 나의 후계자 칼리프들의 전통도 지켜야 합니다...”⁷⁾ 예언자께서 안사르 출신 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하여 분대를 파견하면서 병사들에게 그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화를 내며 말했다. “예언자께서 나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병사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뺨감을 모으라고 하였다. 병사들이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그 뺨감으로 불을 피우라고 하였다. 병사들이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그 불속으로 뛰어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말했다. “도주하여 예언자에게 피신처를 구해 불지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하면 될 텐데!”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 불이 꺼졌고 지휘관의 분노도 가라앉았다. 이 소식을 접한 예언자가 말했다. “만일 병사들이 불속으로 뛰어들었다면 그들은 부활의 그날 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슬람법을 준수한다면 그에 대한 복종은 의무입니다.”⁸⁾

4) 최영길, 『이슬람과 성서의 종교』,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6), pp. 11-12.

5) 인간이 사용하는 대다수 언어에는 창조주를 지칭하는 고유명칭들이 있다고 했다. 영어로는 [가드] 라 하였고, 페르시아어로는 [카다], 인도어로는 [두유따], 한국어로는 [하느님, 혹은 하나님], 아랍어로는 [알라] 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최영길 역, 『한국인이 아랍국가에 제출한 100문답』, (젯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문화센터, 1980), 질문 3에 대한 대답.

6) 꾸란(4:59)

7) Yahya bin Sharaf Al-Nawawi, *Riyadh Al-Salihin*(Riydah: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p.109.

8) Muhammad Muslim Khan 역, *Sahih Al-Bukhari*(Riyadh: Maktaba Dar Al-Salam, 1994), p. 795.

살레 H. 알아이드는 「이슬람 국가에서의 비무슬림의 권리」란 그의 저서에서 국민들이 동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헌법은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에 근거한 이슬람법에 근거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최초 통치제도가 확립된 후⁹⁾ 압둘아지즈(Abdulaziz bin Abdurahman Aal-Saud) 국왕이 꾸란(Quran)을 국가의 최상위법으로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과 전통을 법률에 가까운 두 번째 법원(法源)으로 채택하고 모든 일을 협의에 의해 처리하라는 꾸란의 지침에 따라¹⁰⁾ 협의기구(Mazlis Al-Shura)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사우드(Saud bin Abdulaziz), 파이잘(Faisal bin Abdulaziz), 칼리드(Khalid bin Abdulaziz), 파하드(Fahd bin Abdulaziz) 국왕도 초대 압둘아지즈 왕의 이슬람 정책노선에 따라 그들 역시 동일한 정책노선을 계승하여 국가정책과 대외정책을 펼쳐나갔고, 파하드 국왕 사망에 이어 2005년 8월 3일 왕권을 계승한 압둘라(Abdullah bin Abdulaziz) 왕도 동일한 정책 노선을 걷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법원(法源), 즉 꾸란과 언행록 및 전통을 통치이념과 통치권·입법·사법·행정·교육·문화·종교·외교정책 등 모든 통치행정에 적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형태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¹¹⁾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의 문구도 일위일체의 유신론에 근거한 이슬람 문구(La ilah illah Allah wa Muhammad Rasulallah)로 장식되어 있다. 이 문구는 물론 태어나는 신생아의 양쪽 귀에 들려주는 문구에서부터 임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문구가 되어 대표적인 감정표현의 수단으로 무슬림들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²⁾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가진 시민은 외형적으로는 단

9) 살레 H. 알아이드, 최영길 역, 『이슬람 국가에서의 비무슬림의 권리』, (서울: 알림출판사, 2006), p. 191.

10) 꾸란 3장 159절(...사안에 관하여 협의하라...) 및 42장 38절(...상호 협의에 의하여 사안을 처리하라...)

11) Research & Publication Dept. *Reflection on the Fundamental of Saudi Policy*(Riyadh: Dar Al-Ufuq. 1995), p. 66.

12) 이 문구의 의미는 알라 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경배의 대상은 그분 밖에 없고 구세주도 그분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어떤 의미로든 알라에 비유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고 성부(聖父)나 성자(聖子)를 두지 않은 채 성신(聖神)만 홀로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도 묘사되고 있는 이 문구는, 무함마드 라수룰라(Muhammad Rasulallah)까지 선서해야 완전한 신앙고백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 절은 무함마드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의 인성을 강조하는 문구이다. 무함마드는 순수한 인간으로서 알라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Rasul)에 불과하며 이와 더불어 모세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도 한 인간으로서 알라의 말씀을 전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부 바크르 제1대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인성(人性)을 강조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슬람법에 따라 모두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이다.¹³⁾ 이로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및 전통에 근거하여 나라가 국난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이슬람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그것이 주님께서 준비하여 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예언자 무함마드가 강조하였기 때문이다.¹⁴⁾

예언자 사망이후 그의 뒤를 이은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시디끼(Abu Bakr Siddiqi)는 그의 취임사에서¹⁵⁾ 꾸란과 예언자의 언행록과 전통에 근거한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하지 아니할 때 통치자는 통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슬람 정책노선은 파하드 국왕이 국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들은 이슬람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행복을 만끽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및 전통에 근거하여 이맘 무함마드 빈 사우드(Al-Imam Muhammad bin Saud)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와함(Shaik Muhammad bin Wabdullwahab) 두 지도자에 의해 건국된 최초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이 나라의 정치를 수행할 것입니다."¹⁶⁾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파하드 전 국왕은 이슬람역사 이래 전대미문의 삼대 이슬람사업, 즉 두 성지 메카의 하람(Masjid Al-Haram) 사원과 메디나의 예언자 사원(Masjid Al-Nabawi) 확장공사와 꾸란 출판사업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그의 삼대 이슬람 사업은 선임자들이 사용하여 온 왕(Al-Malik) 또는 페하(Al-Jalalah)라는 칭호와 함께 '신성한 두 사원의 수호자'(Khadim Al-Haramain Al-Sharifain; The

면서 그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사(必死)의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대중 연설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 13) Ministry of Information, *This is Our Country*(Riyadh, Arabian Encyclopaedia House, 2002), p. 128.
- 14) 아부 우마마 바힐리(Abu Umamah Bahili)가 전하고 있다.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고별 순례에서 행한 연설을 들었다. "알라를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하루 다섯 번 예배를 하고 라마단 달의 단식을 실천하며 이슬람세를 바치면서 이슬람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 한 통치자들의 명령을 따르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준비하여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Yahya bin Sharaf Al-Nawawi, *op. cit.*, p. 59.
- 15) "국민 여러분, 제가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저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제가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나라를 다스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Muhammad Yusuf Al-Kandihawi, *op. cit.*, 1985, p. 12.
- 16) Research & Publication Dept. *op. cit.*, pp. 86-87.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라는 칭호 도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 1986년 11월 젯다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발표된 후 그 다음해 1987년 왕령에 의해 이 칭호가 공표되었다.¹⁷⁾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꾸란에 근거하여¹⁸⁾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과 전통을 이슬람법(Shariah)의¹⁹⁾ 제 일차적 법원으로 채택하고 꾸란의 불변성과 보전을 강조하면서 이슬람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집행 역시 꾸란에 근거하고 있다. 알라께서 내린 이슬람법으로 형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꾸란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알라께서 그대에게 내린 것으로 재판하라”²⁰⁾ 형벌의 체계는 검사의 구형권과 판사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고의적 살인 및 신체상해죄에 적용되는 끼싸스(Qisas)와 핫드(Hadd), 법관의 양심에 따라 법관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타우지르(Tauzir)가 있으며, 형 집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증인제도와 공개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보복형 또는 응보형으로 알려져 있는 끼싸스(Qisas) 형은 이슬람 역사 시대 이전 아랍 부족사회에서 행하여져 왔던 관습법으로 이슬람법이 적용된 이후부터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살인죄와 신체상해죄가 여기에 속하나 고의성, 과실 또는 단순실수의 여부에 따라 형의 종류와 형량도 다르다. 끼싸스에 해당하는 죄목과 형벌은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규정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자나 법관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

17) *Op. cit.*, pp. 56-57.

18) 알라께서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알라께서 그것을 보전할 것이라.(15:9) 알라는 그대 무함마드에게 이슬람법을 계시했으니 그대는 그 길을 걸어가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꾸란(45:18)

19) 이슬람법은 유추해석(Qiyas)과 합의(Ijma)가 추가되어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그의 나이 40세 되던 서력 610년 메카 히라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라의 계시를 받기 시작하여 그곳에서 13년, 메디나로 도읍을 옮긴 후 그가 사망할 때까지 10년, 총 23년 동안 계시 받아 한 권의 필사본으로 집대성된 책이며, 언행록과 전통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Qaul)과 행위(Fiul), 타인의 행위 또는 습관에 대한 예언자의 묵시적 인정(Taqdir) 그리고 예언자의 품성과 태도(Sifah)에 관한 묘사가 집대성된 책이며, 유추해석은 꾸란과 언행록 및 전통에 근거한 추리 해석이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적용할 정확한 법조문을 꾸란과 하디스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유사한 법조문을 꾸란과 하디스에서 찾아 유추 해석하여 새로운 사안(事案)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즈마아는 이슬람 법학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에 도입된 제도로서 새로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을 꾸란이나 하디스 안에서 찾을 수 없고 그와 유사한 판례도 없을 경우 이슬람 법학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20) 꾸란(5:49)

자가 꾸란과 하디스가 규정하고 있는 형량과 형 집행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핫드(Hadd)는 경계 또는 범주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알라가 금지한 영역과 허락한 영역의 경계 또는 한계라는 뜻이다. 죄의 항목과 종류 그리고 형량이 꾸란이나 하디스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칠 수 없으며 법관의 재량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죄의 항목으로는 이슬람 통치체제를 거부하는 국가 반역자 및 반이슬람 행위로 인한 국가반역죄, 간통죄, 위증죄, 절도죄, 주류생산 및 음주 죄 등이 이 항목에 해당된다.

타우지르(Taujir)는 훈계라는 자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끼싸스와 핫드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으로 법관이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통치자의 특별사면권이 허용되는 부분이다. 즉 끼싸스와 핫드에서는 범죄구성 요건과 형량이 꾸란과 하디스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특별사면권이나 법관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고 타우지르에서는 법관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성지 불법 침입 죄,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을 파괴하는 행위, 이슬람을 비방하는 언행 등이 이 항목에 해당된다.

3. 사회문화로서의 이슬람

이슬람은 여섯 가지 믿음(Arkanul Iaman Sittah)의 영역을²¹⁾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 이슬람(Arkanul Islam Khamsah)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 각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되면서 국가의 사회문화로, 더 나아가 전 세계 이슬람 세계의 공동체문화로 발전하였다.

첫 번째는 알라의 존재를 믿는다는 증거로 증인 앞에서 신앙고백(Shihadah)을 하는 것이다. 증인은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면 되나 선서를 받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알라다. 인간은 타인을 구원할 힘이나 비적을 부여할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인이 없을 때는 알라 앞에서 선서하면 된다. 최후의 증인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이다. 알라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였으며 알라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알라를 발견한 것이어서 알라를 보고 있

21)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가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라의 존재에 대한 믿음, 둘째: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 셋째: 예언자와 사도들에 대한 믿음, 넷째: 성서들에 대한 믿음, 다섯째: 숙명과 운명에 대한 믿음, 여섯째: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

는 상태이며 자신이 알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알라께서 그를 보고 있다고 예언자 무함마드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이 문구는 이슬람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라 앞에 선서하는 신앙고백이요 임종하는 사람이 신국에 들어가기 전 신고하는 문구이며 무슬림들이 일상 종교생활에서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과 예배시작을 알리는 이قام(Iqamah)을 통해서 매일 최소한 10번 이상 암송하고 되새기는 문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문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기를 잠재우는 조용한 자장가로, 분노를 표출하는 구호 등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이나 추한 모습, 비참한 참사, 비인간적인 행위, 부정부패의 정부를 타도하는 반정부 구호 등 다양한 감정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²³⁾

두 번째는 알라와 교화하기 위한 예배(Salah)이다. 알라와의 대화 수단으로서의 예배는 복을 빈다는 자구적 의미와 더불어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회개하여 알라에게 접근하고 빌어서 얻은 복에 대하여는 감사를 통해 알라에게 접근해 가는 수단이요 알라와 인간 사이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내지는 매개체라는 것이 꾸란이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의미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예배를 비유하여 천막을 지탱하여 준 지주라 하였다. 천막에서 지주를 제거하면 천막이 무너지듯이 알라와 대화를 나누는 매개체인 예배가 없다면 알라와 인간과의 관계는 단절될 것이라고 하였다. 알라의 존재와 실체를 인정하는 신앙고백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인증서라고 한다면 예배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심판의 날 제일 먼저 계산되는 것이라 하였다.

몸에 묻은 때를 씻어 내는 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의 죄와 때를 닦아내는 것은 예배라고 하였다. 한번 씻어 때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두 번 닦고, 그래도 씻어지지 않는다면 세 번, 네 번 그리고 다섯 번까지 닦으면 몸에 묻은 때가 지워지듯이 마음속에 오염된 때와 죄도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지론이다.

알라가 수락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배시간 알림(Azan)과 예배시작 알림(Iqamah)이 있다. 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무아진(Muazzin)이라고 하는데 악기에 의한 반주 없는 남자의 육성이 사원의 뿔족탑(Minarah)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하여 하루 다섯 차례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리듬을 타고 흘러나오는 아잔은 무슬림들의 일상적 시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정규방송까지 잠시 중단되고 아잔이 흘러나올 정도다.

22) 최영길,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1권』, (서울: 알림출판사, 2008), p. 77.

23) 최영길, 『이슬람문화』, p. 22.

그 다음은 청결(Tahara)이다. 꾸란은 알라를 영접하기 위한 인간의 마음과 외모는 가장 청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²⁴⁾ 이에 근거하여 예언자 무함마드는 청결하게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하다고 못을 박았다. 즉 알라가 그의 예배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의 노출된 부분을 물로 오른손부터 시작하여 왼쪽으로 닦는다. 양 손을 시작으로 입안, 코 속, 얼굴, 오른팔, 왼팔, 머리, 귀, 목, 오른발, 왼발 순으로 세 차례 이상 닦는다. 씻는 부분과 순서는 꾸란이 언급한 것이며 방법과 횟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우두(Wudu)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의 일상적인 세수문화이며 목욕문화다.

그 다음은 예배의 방향(Qiblah)이다. 꾸란은 예배의 방향을 규정해 놓고 있다. 예배를 근행하는 사람의 얼굴이 카오바(Kaaba)를 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해온 후 16개월 동안은 예루살렘(Bait Al-Quds)을 향해 예배함으로써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의 최초 예배방향이었다. 그 후 꾸란에 의해 예배방향이 예루살렘에서 메카의 카오바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로 메카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의 통일된 예배방향이 되어 그들의 정신적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도살되는 짐승의 얼굴도 메카를 향하며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고인(故人)의 얼굴도 메카를 향하여 매장된다. 이처럼 메카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방향이요, 죽은 자들의 얼굴이 지향하는 방향이며, 죽어가는 짐승의 고개가 향하는 방향이 되면서 역시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의 일상생활 및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은 꾸란에 근거하여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깨끗하고 합법적인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알라가 정한 이슬람세(Zakat)를 바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슬람세는 두 종류가 있다. 라마단 한 달 동안 단식을 마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자신보다 어렵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 내는 단식을 깨뜨리는 이슬람세(Zakatulfitr)와 연말정산에서 개인비용, 가족 부양비와 용돈,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리고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상환한 후 남은 순 소득이 15불 이상이면 그 소득의 2.5%를 납부하는 이슬람세가 있다. 양(量)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내는 자선(Sadaqa)과는 달리 이슬람세 미납자는 내세에 가서 구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슬람세는 남을 위해 베푸는 자선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복지세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이슬람세로 냈을 경우 알라께서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얻

24) 꾸란(5:6)

은 이자 소득이나, 훔친 재물, 유흥업으로 취득한 소득, 도박이나 경마 등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가 금지하고 있는 항목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이슬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꾸란은 이슬람세 수혜 대상자를 다음의 8가지 분야와 관련된 무슬림들로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 노예, 고아원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사원 등 공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지불능력이 없는 채무자, 사회모범자로서 격려와 위안을 받을 사람, 이슬람 세무 공무원, 여행 중에 예기치 않게 여비가 떨어진 여행자가 해당된다.²⁵⁾ 이처럼 이슬람세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불우한 이웃돕기를 위한 일시적인 성금 개념을 넘어서서 무슬림 각 개인의 종교적 의무요 동시에 국가 중심의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부(富)의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 세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라마단 달의 단식(Saum or Siyam)이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했던 것처럼 무슬림들도 단식을 해야 한다고 꾸란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라마단 달은 꾸란이 최초로 계시된 달이요, 단식을 통해서 알라를 경배하는 신앙의 달이며, 인간의 소원을 알라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늘의 천사들이 땅으로 오르내리는 거룩한 달이며,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달로 정의되고 있다.

흰 실과 검은 실이 분간될 정도의 아침 새벽기도(Salatulfazr)를 알리는 시간부터 해가 서산 혹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는 음식이나 음료수 등 일체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의 성생활이나 흡연도 이 기간에는 피한다. 해가 서산이나 지평선 너머로 지는 순간 각 사원의 뿔족탑(Minarah)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네 번째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를 듣거나 또는 그 날의 단식 종료를 알리는 대포발사 소리를 듣는 순간 미리 준비하여 둔 종려나무 열매(Tamr)와 음료수 등으로 단식을 깨뜨리는데 이를 이프타르(Iftar)라고 하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단식을 깨뜨린다는 것과 더불어 저녁에 먹는 그날의 아침식사란 뜻도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배고픈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이 음식은 가능한 서둘러 섭취하라고 하였다.²⁷⁾

라마단 달이 아니고 평일 같으면 그 날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라마단 달의 저녁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날의 일과가 계속되는가 하면 그 날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

25) 꾸란(9:60)

26) 꾸란(2:183)

27) 무함마드 테르카이트, 최영길 역, 『라마단』, (서울: 알림, 2000), p. 49.

이기도 하다. 단식을 하는 낮 동안 꼭꼭 닫혀 있던 거리의 식당과 가게들이 전등 불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다. 시장이나 크고 작은 가게들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회사 사무실에서는 상담이 오가며, 이슬람 사원에서는 거룩한 라마단 달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학자들의 강의가 열리며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벌어진다. 단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새벽에 가벼운 식사를 하는데 이때의 식사를 사후르(Sahur)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 음식을 가능한 늦추어서 섭취하라고 하였다.²⁸⁾ 그런 후 새벽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꾸란을 읽거나 건전한 담소를 나누면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예배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라마단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모습이다.

라마단은 알라의 부름을 받고 또 인간의 소원을 알라에게 전하기 위해서 꾸란을 읽고 암송하는 달로 정의되고 있다. 그 날의 다섯 번째 마지막 저녁예배(Isha)가 끝나고 나면 라마단 달에만 실시되는 타라위(Tarawih)라 불리는 특별예배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이 예배를 통하여 꾸란 전체를 암기하거나 읽는다.

이러한 상황이 라마단 한 달 동안 매일 계속되다가 그 달 마지막 날 밤을 끝으로 낮 동안의 단식과 밤 동안의 종교적 의식이 막을 내린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Shawal) 10월 첫 날 명절을 맞이한다. 이 명절을 이돌피트르(Eidulfitr)라 하는데 단식을 깨뜨리는 축제요 명절이란 뜻이다. 이 명절은 3일 이상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명절 첫날 축제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단식을 깨뜨리는 이슬람세(Zakatulfitr)를 바친다. 임신 중에 있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각 개인당 쌀 한 되 또는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정된 사회단체나 기관 또는 사원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도록 한다.

라마단의 단식도 이슬람세와 마찬가지로 무슬림 각자의 종교적 의무행사를 넘어서 국가 중심의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집단적·사회적 이슬람 행사이며 이돌피트르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의 고유명절의 의미를 갖는다.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Hajj)다. 경제적 능력과 신체적으로 건강한 무슬림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이슬람의 오행 중의 하나라고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는²⁹⁾ 강조하고 있다. 무슬림 각 개인의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연례행사이며 범세계적 연례행사가 되어오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³⁰⁾ 정해진 장소에서 동일한 순례의식을 행하는 200만 이상의 순례자들의 입국

28) 사후르(Sahur) 새벽 음식을 먹는 시간은 꾸란 50절 분량을 읽었을 때 아침예배(Fazr) 시간이 될 때의 시간이라고 예언자 무함마드는 언급했다. *Ibid.*

29) 꾸란(3:97, 22:27)

과 출국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라마단의 단식 행사가 종료된 때부터 순례행정으로 전환되며 메카의 성지순례 시설의 수용한계로 각 이슬람 국가에 순례비자 쿼터를 적용하는 등 전 세계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들에게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례자는 하얀 순례 의상(Ihram)을 걸치고 예언자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 카오바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걷고 뛰면서 일곱 바퀴 돈다(Tawaf). 그런 후 하갈의 전통에 따라 사파(Safa)와 마르와(Marwa) 두 바위 언덕 사이의 회랑을 걷고 뛰면서 일곱 번 보행한다(Sai). 하지 달 9일 순례자들은 하람사원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아라파트(Arafat)로 이동하여 순례의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데(Wookuf) 이내 가지를 순례의 4대요소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 남성은 속옷까지 벗어버리고 바느질이 안 된 두 장의 길고 흰 천을, 한 장은 허리에 둘러 아래를 가리며, 다른 한 장은 어깨에 두르고 순례에 들어간다. 평상복을 벗고 하얀 천으로 몸을 가리는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귀의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수의(囚衣) 한 벌만 걸치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모습과 같다고 하였다. 알라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에 근거하여³¹⁾ 허름한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맨발로 순례하기도 한다.

꾸란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단에 바쳤다고 언급하고 있다.³²⁾ 이 전통에 따라 순례 달(Dhul Hajj) 10일 순례자들은 메카에서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들은 가정에서 이슬람이 허용하고 있는 양이나 소 또는 낙타를 도살하여 제단에 바치면서 그 고기를 3등분하여 3분의 1은 이웃과 친지에게 나누어주고 3분의 1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주며 나머지 3분의 1은 가족이 먹으면서³³⁾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인 순종을 가정과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효도 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날 역시 무슬림 각 개인의 종교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찾아 온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연례 국가행사이며 동시에 전 세계 무슬림들이 매년 맞이하는 가장 큰 명절이요 한 해의

30) 순례(Hajj)는 정해진 기간 정해진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꾸란(2:197)은 명시된 달(月)이라 하였고, 이슬람 학자들은 이 달을 이슬람력 10월(Shawal), 11월(Dhul Qaada) 그리고 12월(Haji) 10일까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순례의식은 이슬람력 10월초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순례의 주요 의식을 행하는 기간은 이슬람력 12월초부터 10일 사이에 수행되며 이 기간 중에도 8, 9, 10, 11, 12, 13 일이 순례의 절정기간이다.

31) 꾸란(20:12)

32) 꾸란 (37:102)

33) 꾸란(22:28)

인사를 주고받는 새해의 의미도 갖는다.

4. 종교로서의 이슬람

라 일라하 일랄라(La ilaha illa Allah :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유신론과 유일신 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 구호이다. 이 문구로부터 이슬람종교가 출발하고 있다.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새겨진 국호이기도 하다. 이 문구를 정통 이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알라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 문구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알라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것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나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고,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는 이원론이다.

한편 이슬람 신비주의는 ‘라 일라하 일랄라(La ilaha illa Allah)’ 문구를 존재론적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럴 경우 이 문구가 갖는 의미는, ‘알라 외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된다. 창조론의 시각에서 볼 때 태초에는 창조주 알라 외에 존재하는 것이 없었고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도 종말이 되면 창조주 알라 외에 모든 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도 소멸하고 없다. 그럼 현재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과 현상들은 무엇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과 현상들은 꿈속의 사물이요 현상일 뿐이다. 꿈속의 사물과 현실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꿈을 깨고 나면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죽고 나면 현재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과 현상들도 모두 꿈속의 사물과 현상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로지 알라 뿐이다.

그렇다고 이슬람 신비주의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슬람 신비주의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나’라는 성품과 ‘자아’를 소멸시켜가면서 신일합일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알라에게 귀의 했다면 그는 신국에 들어가 온전한 천국을 맛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자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알라와 대립관계에 있었다면 그는 신국의 입성이 금지되어 천국을 전혀 맛 볼 수 없다. 한편 ‘나’라고 하는 자아를 절반 정도만 버렸다면 그의 천국과 지옥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꾸란에 언급된 두 번째 믿음은 천사들(Malaika)이다. 무함마드가 행한 설교에서도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천사는 빛으로 창조되었기에 알라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형상을 하고 있다. 두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는가 하면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도 있고 네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도 있다고 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 천사로 알라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숫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 알라를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생명체 안에서 알라의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에게 알라의 메시지를 전했던 천사가 있고 각 개인의 일생 동안의 업적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 인간의 죽음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

인간에게 알라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를 꾸란은 ‘가브리엘’이라고 하였다. 천국에 배속된 천사들을 ‘피르다우스’라고 하며 이들의 수장은 ‘리드완’으로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다. 지옥에 배속된 천사들은 ‘자바니스’라 불리며 이들의 수장은 ‘말리크’로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다. 지옥의 불을 이곳을 관리하는 천사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바다가 물고기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다.

태어나는 모든 각 인간에게는 네 명의 천사들이 귀속된다. 둘은 낮에 그리고 다른 둘은 밤에 각 개인의 생각과 행위를 기록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 개인을 동행한다고 하였다. 우편에 동행하는 천사는 ‘라킵’으로 그는 각 개인의 선의(善意)와 선행(善行)을 기록하고 좌편에 동행하는 천사는 ‘아티드’로 각 개인의 악의(惡意)와 악행(惡行)을 기록한다고 했다.

천사들 사이에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서열이 있다고 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로는 네 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이 가장 높은 서열에 있다. 그의 임무는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고 예수나 무함마드에게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했다.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이스라필’ 천사는 ‘수르’라 불리는 나팔을 두 차례 부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알라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소멸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었던 모든 것이 부활되어 알라의 심판을 받게 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 번째 서열에 있는 ‘미카일’ 천사는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 희귀한 것과 풍부한 것을 모은 후 모든 물체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네 번째 서열에 있는 ‘이즈라일’ 천사는 인간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고 하였다.

천사들에게는 신성이나 신격이 부재하고 최소한의 자유의지도 없다. 오직 알라의 명령만을 집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알라와 인간 사이에 중재역할도 못하며 승배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하였다. 천사들은 알라 명령에 따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엎드려 존경의 인사까지 하였다고 했다.

꾸란에 언급된 세 번째 믿음은 예언자들(Anbiya)과 사도들(Rusul)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다. 무함마드 역시 이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알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간의 사후세계를 설명하고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칠 스승으로써 알라의 택함을 받은 인간들이라고 하였다. 예언자나 사도의 자격은 청빈(淸貧)이나 고행(苦行), 수도(修道) 및 기도생활 또는 출가(出家) 등 인간의 헌신이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알라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였다.

꾸란에 등장한 숫자는 예언자(Nabi)와 사도(Rasul)를 합쳐 모두 25명이며 무함마드에 따르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예언자 수는 124,000명에 달한다.³⁴⁾ 그 중에서 373명 혹은 315명이 사도이고 그 가운데서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가 대표적인 6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 6인을 포함하여 롯,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요한, 솔로몬, 다윗 등 33인은 대표적 예언자로 알려져 있다. 여성 중에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언자가 있다고 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최초의 여성 예언자로 꾸란은 소개하고 있다. 그 밖의 여성 예언자로는 모세의 모친과 파라오의 딸 아시야와 무함마드의 아내 카디자 및 그의 딸 파티마가 소개되고 있다.

꾸란은 알라의 택함을 받은 예언자와 사도들을 선별하여 믿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세만을 믿고 예수와 무함마드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만을 믿고 모세와 무함마드를 빠뜨린다면 무함마드만을 믿고 모세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알라를 불신하는 큰 죄로 보았다. 그러나 알라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 역시 인간에 불과하므로 타인을 구원할 힘이나 비적을 부여할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세나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세주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꾸란에 언급된 네 번째 믿음은 알라의 성서들(Kutub)이다. 무함마드가 행한 설교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어떤 성서들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알라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어떤 성서들은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직접 내려졌다고 하였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는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메시지를 받았고 예수와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였다.

꾸란에 언급된 알라의 성서들은 아브라함의 '수호프'를 시작으로 다윗의 '자부르'(시편), 모세의 '토라'(모세 오경), 예수의 '인질'(복음서) 그리고 무함마드의 '꾸

34) 최영길,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서울: 살림출판사, 2009), p. 9.

란'(코란)이 있다. 이 성서들은 이미 신국의 서판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설과 상황과 사도들의 기도에 따라 알려게서 말씀으로 내려 보냈다는 설이 있다. 마우두디 학자는 「이슬람의 원리」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수호프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아무 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의 시편과 모세 오경 그리고 예수의 복음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라의 본래 메시지가 담긴 원서의 성서들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무함마드에게 전달된 알라의 메시지는 꾸란이다. 무슬림들은 꾸란이 변질된 알라의 모든 메시지를 완전히 회복한 알라의 책이라고 말한다. 아랍어 원본대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꾸란은 언급하고 있다. 알라의 메시지가 변질되고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역서를 통한 예배생활을 금기하고 기록 보존과 암기 보존을 병행하고 있다. 마우두디 학자는 이제 꾸란만이 유일한 알라의 메시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꾸란에 언급된 다섯 번째 믿음은 내세와 종말과 부활과 심판이다. 무함마드가 행한 설교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땅으로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변태의 과정으로 꾸란은 설명하고 있다. 모든 존재의 시발점을 알라의 창조에서 보듯이 모든 존재의 소멸도 알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개체가 소멸하는 그 날을 종말이라 하였다. 죽음은 현세를 마감하고 내세로 향하는 첫 단계다. 죽음은 현세의 삶에서 내세의 삶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난 처음보다 내세를 위한 현세의 마지막 날이 더 좋다고 꾸란은 언급하면서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이 더 아름답다고 좋다는 것을 예시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종말의 시점은 알라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다.³⁵⁾

그 다음에는 부활이다. 그런데 연옥(Barzakh)이라고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고 했다. 이 단계를 두고 무덤 속에 있는 상태 또는 죽음 이후에 오는 상태 또는 죽는 순간부터 부활의 시각까지의 기간 및 상태라고 꾸란은 언급하고 있다. 이 중간단계에서 영적인 새 삶은 일정한 형태를 띠게 되고 영적 의식이 성장하지만 부활의 단계에서 완성될 완전한 의식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인간의 의도와 행적에 대한 심판이다. 착한 마음을 갖고 선(善)을 실천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악한 마음으로 악(惡)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징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무함마드는 바로 업적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35) 최영길 외, 『꾸란 어휘사전』, (서울: 알람, 2005), p. 304.

죽으면 세 가지를 남기지요. 자손과 재물과 업적이 그것이지요. 그 셋 중에서 두 가지는 돌아오고 한 가지만 고인과 함께 내세로 여행을 떠나지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고인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유족들은 눈물을 닦고 돌아오고 고인이 평생 동한 축적했던 재물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가 살아서 쌓았던 업적만이 고인을 따라갈 뿐이지요.”

꾸란에 언급된 여섯 번째 믿음은 정명과 숙명과 운명이다. 무함마드도 역시 이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다. 각 개인의 생로병사가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나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알라의 법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善)과 악(惡)도 이 법도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슬람교는 일위일체의 신론을 주장하였다. 알라는 선과 악의 이중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악(惡)의 속성이 완전히 배제된 온전한 선(善)의 단일성 존재다. 그러므로 악(惡)은 알라가 인정한 불완전하고 제한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들어내는 산물이다. 선과 행복은 알라의 절대적 선(善)과 그분의 은총에 의해 얻어지며 악과 불행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다.

5. 결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꾸란을 헌법으로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과 전통을 법률 및 관습법으로 채택하고 이슬람을 통치이념과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의 원리로 삼고 있다. 통치자가 이슬람법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은 그 통치자의 정책을 따라야하고 꾸란과 예언자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설(說: Bid'a)을 제기하거나 유포시킬 수 없다. 이것이 통치자로 하여금 이슬람법을 더욱 준수하게 만드는 동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슬람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소개하려는 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배척되어야 합니다.”³⁶⁾ “가장 나쁜 것은 이슬람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³⁷⁾

헌법으로 채택되어 있는 꾸란은 자구와 의미 모두가 알라로부터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인간에 의한 헌법제정과 폐기는 물론 수정 · 보완까지도 차단됨으로서 국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결국 현대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36) Yahya bin Sharaf Al-Nawawi, *op. cit.*, p. 117.

37) *Ibid.*, pp. 117-118.

슬람은 국회와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치문화와 사회문화가 부재한 이슬람의 종주국을 만들고 있다.

이슬람의 오행(五行)이 무슬림들 각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생활문화가 다시 이슬람 국가들의 사회문화로 정착되면서 이 사회문화는 이슬람 세계의 공동체문화로 발전하였다.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각 개인의 화장실문화를 비롯한 세수문화, 이돌피트르(Eid Al-Fitr)나 이돌아드하(Eid Al-Adha) 명절, 그리고 무슬림들의 메카 순례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의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놓았고 메카 순례는 현대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슬람 종교는 존재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다고 확신하고 인간을 비롯한 우주만물을 존재케 한 실체의 존재를 이성과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는 단 하나 밖에 없으며 그 실체의 명칭은 아랍어를 사용했던 무함마드를 통해서 소개된 아랍어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Hadith)을 통하여 알라(Allah)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실체의 명칭은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그 실체는 동일한 하나의 실체라고 하였다.

존재론은 다시 이원론과 일원론으로 발전했다. 태초에는 알라 외에 어떤 신도 없다고 했다. 알라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것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원론이다. 한편 태초에는 알라 외에 존재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알라의 창조에 의해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말이 되면 알라 외에 모든 것은 소멸됨으로 결국 천국과 지옥도 없어지고 알라만 남은 일원론이 된다. 일원론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신일합일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켜 신일합일이 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지옥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 이슬람은 이념과 사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실천종교로서의 생활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며 내세를 다루는 종교문화로 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대한 연구도 세 가지의 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사우디아라비아, 꾸란, 이념과 사상, 사회문화, 종교문화

원고접수일: 2010년 5월 24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9일

Abstract

The Islam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day

Choi, Young-Kil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lluminates the Islam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day from the three points of view. The first point of view is that the Islam of Saudi Arabia is the ideology and thoughts like a democracy, communism, and socialism. Quran is not only the scripture like a bible but also the constitution in this state not like a bible in the christian states. Hadith of the prophet Muhammad is the second source of the law and so on.

The second point of view is that the Islam of Saudi Arabia is the social cultures. That's because the practice of five pillars of Islam is a way of life everyday and every year. The two kinds of the national holidays(the Eidulfitr and the Eiduladha) come from the five pillars of Islam. The cleanliness, purification, and the going to the bathroom for the urination and excrements in the Islam is the same way of the daily life of all human beings and so on. The third point of view is that Islam is a religion like a Buddhism and Christianity. The six pillars of Iman(belief) represent the doctrine and theology of the religion of Islam and so on. So The Islam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must be studied from the above mentioned three points of view.

* Key Words: Kingdom of Saudi Arabia, Quran, ideology & Thought, Social Culture, Religious Culture

참고문헌

- 무함마드 수하임, 최영길 역, 『이슬람』, 서울: 알림, 2007.
- 무함마드 테르카이트, 최영길 역, 『라마단』, 서울: 알림, 2000.
- 최영길, 『꾸란 주해』, 서울: 세창출판사, 2010.
- , 『이슬람문화』, 서울: 알림, 2004.
- , 『꾸란 어휘사전』, 서울: 알림, 2005.
- , 『이슬람 국가에서의 비무슬림의 권리』, 서울: 알림, 2006.
- , 『이슬람과 성서의 종교』,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6.
- ,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1권』, 서울: 알림출판사, 2008.
- ,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서울: 살림출판사, 2009.
- ,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서울: 세창출판사, 2009.
- , 『한국인이 아랍국가에 제출한 100문답』, 젯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문화센터, 1980.
- Ministry of Information, *This is Our Country*, Riyadh, Arabian Encyclopaedia House, 2002.
- Muhammad Muslim Khan 역, *Sahih Al-Bukhari*, Riyadh: Maktaba Dar Al-Salam, 1994.
- Muhammad Yusuf Al-Kandihawi, *Hayyat Al-Sahabati Vol.II*, Jeddah: Dar Al-Manarah, 1985.
- Yahya bin Sharaf Al-Nawawi, *Riyadh Al-Salihin*, Riyadh.: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
- Research & Publication Dept.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Reflection on the Fundamental of Saudi Policy*, Riyadh: Dar Al-Ufuq. 1995.